

RIS 사업단, 도내 취업형 인력양성 시동

군산 소재 대두식품, 취업확정형 10명 업무협약 농생명바이오분야 특화로 K-푸드 메카 육성 기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RIS 사업)의 농생명·바이오사업단이 지난 19일 푸드테크 및 바이오소재 분야의 연간 배출인원 중 10명을 (주)대두

식품에 취업시키는 확정형 채용 약정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지자체의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

고, 도내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K-푸드메카로 자리매김함과 더불어 전북지역의 경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RIS 사업의 농생명바이오사업단은 11월 3일 발대식 이후 12월 20일 산업체, 지자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기업설명회를 추진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농생명·바이오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도내 대학교

협업을 통해 실무에 투입이 가능한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대두식품의 조성용 대표이사는 이날 협약 체결을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 확보와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두식품의 기술연구소와 농생명·바이오사업단이 협력해 기초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농생명·바이오사업단이 지난 19일 푸드테크 및 바이오소재 분야의 연간 배출인원 중 10명을 (주)대두식품에 취업시키는 확정형 채용 약정을 맺었다.

RIS 농생명바이오사업단 단장을 맡고있는 원광대학교 최준호 교수는 “농생명바이오분야에서 배출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에 대한 정주 취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RIS 사업의 핵심이다”며, “우리 사업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에 대한 취업 확정은 지방 대학의 경쟁력 및 취업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백승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식품과장은 “지난 9월부터 운영하는 푸드테크 계약학과와 더불어 푸드테크 및 바이오분야의 실무인력이 양성되어 산업체에 지속 투입이 된다면 전북이 푸드테크 산업의 메카로 더욱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거듭나도록 도내 대학이 지역 푸드테크 산업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참여단체 공모

전북자치도,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접수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2024년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22일부터 2월 8일까지 모집한다.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는 청년마을을 발굴해 지역과 상생하는 활동 프로그램, 지역과의 교류·협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해 15개 청년마을을 지원했다. 올해는 총 5개 청년마을을 선정해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서 활동하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단체 또는 기업으로, 대표가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구성원의 청년 비율이 40%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다만 올해부터는 도내 인구감소 지역(관심지역 포함)을 대상으로 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침체된 지역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전주, 군산, 완주 제외 전 시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단체 등은 해당 시군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도,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된 사업은 1차 서류평가, 2차 현지실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사업 실효성 및 지속성, 지역자원 연계성, 지역주민 유대·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될 5개의 청년 마을은 전문 컨설팅과 사업 계획 보안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도약하고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지역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설 명절 대비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단속

전북자치도 특사경, 오늘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실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도민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공급 및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주로 찾는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내 축산물 판매업소가 대상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육 등 축산물 보관·운반과정의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중증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등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사법처리 및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고,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언론홍보로 사회적 경각심을 가지도록 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과 위생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축산물 판매업소 등 현장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도내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 추진

섬 지역에만 유일하게 부과되는 추가배송비 부담 감소 1인당 연간 지원 금액 최대 40만원으로 정주여건 개선

전북특별자치도가 22일부터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군산 옥도면, 개야도, 관리도, 부안 위도, 식도 등 도내 15개 섬 지역과 군산 신시도, 아미도 등 5개 연륙 도서지역에 주민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2024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섬 지역에 사는 주민이 택배를 이용할 때 차량 및 화물 도선료로 인해 지역에 따라 육지보다 1건당 최소 3,000원, 최대 7,000원까지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다. 올해에는 섬 지역에서 연륙도서지역까지 확대해 예산 5천만원이 투입되며

예산 소진시까지 택배 1건당 추가배송비 싹비 전액 지원 등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에 본인 인적 사항과 금융기관 정보 등 신청서 작성 및 추가운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은 증빙자료 검토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매월 1회 이상의 주기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택배이용자명에 사업체 또는 법인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지원금 신청 당시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해당 섬 지역과 연륙도서 지역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2024년 섬 지역 생활물류 지원사업”을 통해 섬 주민의 택배비 부담이 낮아져 섬 주민의 생활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쌀 품질 향상 위한 ‘쌀 등급기준’ 강화

‘보통’ 등급 쌀이 혼입 한도 20%→12% 이달부터 시행

우리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보통’ 등급의 쌀이 혼입 한도를 20%에서 12%로 강화한 쌀 등급기준 고시 개정안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되며, 쌀라기, 분상질립, 피해립 등의 혼입 정도에 따라 등급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쌀라기 함량이 높으면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의 흡수가 빨라져 ‘죽밥’이 되는 등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지므로 ‘보통’ 쌀 등급의 쌀라기 혼입 한도를 20%에서 12%로 대폭 강화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강화된 등급기준이 쌀 시장에 원활히 정착되고 유통돼 쌀 품질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도내 미곡종합처리장(RFC), 임·도정공장 등에 안내함과 동시에 쌀 등급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임을 홍보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쌀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